

# 시설채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 성료

##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 주최 포천종합체육관에서



제5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9월27일 오전11시30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식을 갖고 시작됐다.

제5회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연구회 한마음 가족 체육대회가 9월27일 오전11시30분 포천종합체육관에서 개최식을 갖고 시작됐다.

이날 개최식에서 원성숙 회장은 "2009년부터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가 친환경농자재를 사용하여 친환경 채소를 생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포천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 포천시 친환경 시설채소단지가 절친적으로 만들어가기를 기대하며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이중효 포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회원 여러분들은 어려운 여건가운데

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농가소득 증대를 통해 지역사회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히고 "오늘 하루 마음껏 달리고 운동하며 친목을 다지는 즐거운 시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계준 포천시시설채소연합회 사무국장은 오늘 참석하지 못한 서장원 포천시장, 황일현 농업중앙회 포천시지부장, 김영우 국회의원에게 별도로 큰 박수를 보내고 제언하여 뜨거운 박수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이날 체육대회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돼 모처럼 시설채소연합회 회원들간의 단란된 힘을 과시하기도 했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친환경 우렁이 농법 무농약 쌀 생산

## 포천시 숲골마을에서 벼베기 시연회 개최

경기도와 포천시는 9월26일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숲골마을)에서 서효원 행정2부지사, 심재인 포천시 부시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이우형 도의원, 이병욱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농업인 및 체험행사 참여 초등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벼베기 시연회를 가졌다.

이날 시연은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 숲골 단지 최효선 농가에서 서효원 부지사가 관인면 주재배 품종인 오대벼를 콤팩트기로 벼베기 시연했으며 이후 참석자들과 함께 벼베기를 실시했다.

관인면 탄동리 숲골 지역은 2003년부터 제조제 및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 농업을 추진하여

농산물의 안정성 및 신뢰도를 높이고 있으며, 숲골단지에서 재배되는 모든 쌀은 친환경 우렁이 농법으로 재배한 무농약 인증쌀로 관인농협에서 전량 계약재배로 체계적이고 안정적 관리를 확보 '친환경 숲골 우렁이쌀'자연미 브랜드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

시연에 이어 서효원 부지사와 심재인 부시장은 쌀 수급 개방, 생산자재 가격(비료)의 급등으로 농업현실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관심있게 경청하고, "쌀도 관행적인 생산 농법에서 벗어나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한 안전성과 기능성을 높인 브랜드화를 통해 어느 상품 못지않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면서 우리시



경기도와 포천시는 9월26일 포천시 관인면 탄동리(숲골마을)에서 서효원 행정2부지사, 심재인 포천시 부시장, 김영호 농업기술원장, 이우형 도의원, 이병욱 시의원을 비롯한 관계자, 농업인 및 체험행사 참여 초등학생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8년 벼베기 시연회를 가졌다.

'해솔촌 기찬쌀' 명품 브랜드 추진방안으로 버스차량 홍보를 통한 소비촉진으로 쌀의 지속 생산과 품질고급화를 위한 시책발굴 등 쌀 생산농가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약속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올해 고품질 쌀 생산목표인 2만2천여톤 생산을

위해 10월1일부터 20일까지 벼베기 중점 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적기수확, 콤팩트 적정 작업속도 유지, 벼 건조 적정온도 유지 및 가공을 위한 기술 지도 지원 계획을 수립하여 중점 홍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연택 기자 uraism@nate.com

# 행복설계 ②

오늘 아침부터 갑자기 쌀쌀한 바람이 불어대더니 어제까지의 따가운 햇살까지 가져가 버린 듯합니다. 우리 포천신문 가족분들 감기는 안 걸리셨나요? 늘 조심하세요.

오늘은 지난 이야기에 이어지는 이야기로 세 번째 소원 상자 만들거입니다.

빈 통을 찾아서 저금통으로 바꾸고 그 통위에 소원을 써 붙이는 겁니다. 소원 하나에 상자 한 개씩을 만듭니다. 돈이란 건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다루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지금 갖고 있는 돈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부터 배워야죠. 소원이 간절하면 할수록 그걸 이루기 위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하죠. 그 꿈을 어떻게 해야 이룰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찾아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가능성이

란 건 찾으려고 노력할 때만 보이지요.

우리 이런 일들을 하면서 어떻게 소원을 이룰 수 있는지 알게 되지만 그 방법을 찾는 게 전부가 아니라 길 알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겠죠. 그게 없으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쉽게 포기하게 됩니다.

돈을 버느냐, 못 버느냐는 좋은 아이디어가 있느냐, 또 네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이런 문제가 달린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입니다.

스스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시작조차 할 수 없고, 시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바로 성공일기를 만드는 거예요. 잘한 것들을 모두 써넣는 겁니다. 개인

# 돈 마술사 되기-2

적으로 성공한 것들을 매일, 최소한 다섯 가지 이상 쓰는 게 제일 좋아요. 아주 사소한 것이라도 괜찮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들이 훌륭한 자료가 될 것이고, 힘든 일을 결정할 때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일전에 우연한 기회에 부자이신 분과 얘길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 분이 제게 해 주신 말씀 중에 첫째, 다른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방법을 찾아라. 둘째, 자신이 알고 있고, 할 수 있고, 가지고 있는 것에 집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을 잘 하지도 못하고 잘 알지도 못하는 것에 집중하며 시간을 보낸다는 겁니다.

이제까지 앞에서 얘기한 목표세우기와 소원상자 만들기, 성공일

기 쓰기 등은 목표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것 또한 돈 없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실수이기도 합니다.

항상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 정말 중요한 일에 관심을 기울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기울일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만의 실천 의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 첫째로 할 일입니다. 무슨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계획한 것은 실천할 것, 특별히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때에 최적으로 일을 해내는 사람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박미라 금호생명 포천지점 비전센터장 031-536-1473

# 사례로 알아보는 세무상식

## 상가 신축해 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자 등록 미리 해두어야

평생을 교육에 몰부쳐 오다 정년퇴직한 오신중 씨는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을 5층짜리 상가주택으로 신축하여 그 임대료로 노후생활을 하려고 한다.

그래서 건축업자와 건축비는 총 6억원으로 하되, 2006년 3월 계약시 1억원, 7월 중도금으로 2억원, 11월 건물이 완공되었을 때 3억원을 지급기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예정대로 2006년 11월 건물이 준공되었고, 상가를 임대하기 시작하면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으며, 공사비 잔액 3억원을 지급하면서 세금계산서(공급가액 6억원, 부가가치세 6천만원)도 교부받았다.

2007년 1월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5천9백만원의 환급신고를 하였으나, 세무서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은 공제를 받을 수 없으므로 잔금 부분만 매입세액을 인정하여 환급을 해 주겠다고 한다.

오신중 씨는 계약금 및 중도금에 대한 매입세액 3천만원을 환급 받을 수 없는 것일까?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되, 예외적으로 등록신청일로부터 역산하여 20일 이내의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례의 경우 오신중 씨는 사업자등록증을 발급 받고 난 후에 건축업자로부터 공사금액 전액에 대하여 한 장 짜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 그러나 오신중 씨가 건축업자와 계약한 것은 중간지급조건부 용역계약에 해당되므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어야 했다.

따라서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은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의 매입세액으로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상이 지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없다.

이와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

기 위해서는 사업준비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실지로 사업을 개시하기 전이라도 사업준비를 시작할 때 미리 사업자등록을 해 두어야 한다.

▶ 관련법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8항 제9항  
제2장 사업을 시작할 때의 세금전락 55  
\* 중간지급조건부 용역의 공급  
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나누어서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로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경우를 말하며,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므로, 이 때에 세금계산서를 발행·교부하여야 한다.

자료제공 : 의정부세무서 재산세과 (031-670-4484 ~ 4487/4502 ~ 4507)

# 산업안전사고 예방

## A형사다리에서 수리작업중 추락

▶ 재해발생 개요  
2007. 12. 18(화) 13:30경 하수도 개선사업 중 건축공사 현장에서 원장 소속 관설공인 피재자(45세)가 벌어진 지붕판 밑을 수정하고자 고정을 하고 있던 피스를 해제하던 중, A형 사다리 위에서 중심을 잃고 1.8m 아래 지면으로 추락하여 사망한 재해임

▶ 재해발생원인  
가. 작업발판 불량  
\* 작업시 유동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다리를 작업발판 용도로 사용하여 적절한 작업면 미확보 등에 의해 작업 중 실족 \* 사다리는 작업발판이 아닌 통로로써 사용하여야 함  
나.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철거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를 지지대를 부착하거나, 사다리 지지대를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 동종재해 예방대책  
가. 적절한 작업발판 사용  
\* 작업면이 높지 않은 경우에도 작업시 유동발생 가능성이 높은 사다리의 작업발판 용도 사용을 지양하고, 적절한 작업면이 확보되고, 유동 및 전도에 안전한 이동식비계 사용  
나. 사다리 전도방지조치 철저  
\* 사다리 사용 시 전도방지를 지지대를 부착하거나, 사다리 지지대를 보조자를 배치하는 등의 전도방지조치 미실시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경기북부지대원 (031-826-6091)



# 탐방 우리지역 사업소 ⑦

# 원조 우렁쌘밥

## 입소문 통해 명소로 자리매김

### 친절과 정성, 고객 마음 사로잡아



대표 한명희

서파우렁차는 눈으로만 대략 훑어보아도 10곳이 넘는 우렁쌘밥 음식점들이 모여서 맛과 입소문을 통해 명소가 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이라면 뭔가 이유가 있지 않을까?

우렁이는 우렁이과의 고동을 통틀어 이르는 말로, 크기는 소라보다 작고 녹색색의 껍데기가 불룩하게 생겼으며, 수렁이나 논에서 산다. 과거에는 논에서 흔히 볼 수 있었지만, 농약 사용이 크게 늘면서 메뚜기, 미꾸라지 등과 함께 이제는 보기 어려워진 생물 중 하나다.

서울에서 승용차로 47분 국도를 타고 일동방

있다. 특히 한 대표의 친척이 직접 우렁이 양식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맛이 담백하고 잡냄새가 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가장 신선한 재료를 바로 받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우렁이에는 칼슘과 철분 그리고 비타민C가 다른 어패류에 비해 10배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건강식품으로 불리기에 절대 부족함이 없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렁이는 간 기능 회복 및 과음 후 숙취 해소, 성인병 및 암 예방 그리고 당뇨병에도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남성의 스테미너 증진과 노화방지, 위궤양이나 십이지장궤양 등에도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니 보양이 무색할 정도다. 웰빙 음식으로 노약자나 어린이들은 물론 임산부의 산후조리에도 매우 좋은 음식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동의보감에도 황달을 예방하고 위장병과 당뇨병 및 간 기능 저하에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기록돼 있다고 하니, 결코 간과할 음식은 아닌 듯하다.

또한, 동종우는 대추와 참살로 숙성시켜 일명 '대추동종주'라고 불리기도 한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잘게 썰린 대추를 보고 빨간 고추인줄 알고 골라서 버렸다고 한다. 그 당시 맛을 본 손님들의 조언을 흘려들지 않고 연구를 거듭했고, 지금은 식사를 하고 1~2병씩

## 웰빙 음식으로 급부상 ... 우렁쌘밥과 대추동종주

향으로 배어스타운을 지나면 서파점문소 이정표가 눈에 들어온다. 우측으로 50m 거리에 두고 있는 장승과 함께 '우렁쌘밥' 간판이 보인다. 넓은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들어서면 "안녕하세요?"라고 반기는 주인의 인사에 손님들의 입가에 미소가 번진다.

한명희 대표(44.사진)는 한번 찾은 손님을 다시 찾게 하는 이유를 "주재료인 우렁이와 동종주"라고 밝히며 "가족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친절과 정성을 다해서 대접하려고 노력한다"고 강조했다.

'우렁쌘밥'의 주재료는 충남 강경의 현주농장에서 생산하는 100% 국산 우렁이를 사용하고

포장해 가는 인기메뉴가 되었다고 말한다.

한 대표가 운영하는 '우렁쌘밥'의 인기비결 중 하나인 요리솜씨는 다름 아닌 칠순을 맞이하는 어머니의 솜씨다. 우렁이는 친척이 직접 운영하는 양식장에서, 주방은 어머니의 시골인심이 묻어나는 솜씨로, 손님접대는 부부가 맡아 그야말로 온 가족이 총출동하여 명절손님을 맞이하는 마음과 친절로 지금의 유명세를 타고 있다.

순두부, 보리밥, 된장찌개, 우렁이와 쌘를 함께 한 식사에 대추동종주 한잔이면 고향의 맛과 시골인심을 만끽하는 식사로 충분하지 않을까 한다.

조성주 기자 cho2182@paran.com



포천시 내촌면 신말리 73-5번지에 위치한 '우렁쌘밥' 전경(단체예약 031-534-9333)